

남가주 마라톤교회

2018 03 01



평신도 후기

저는 가정주부로서 매일 성경듣기를 통해 들은 말씀을 생활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특히 부엌일을 다 마친 후에 조용한 시간에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그 말씀이 주시는 것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더욱 제 생각을 돌아보게 되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말씀을 일년에 한번 읽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듣기 성경으로 대하다보니 성경이 더 가까이에서 들려지고 자주 듣게 되고 금년에는 여러번 성경을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 월 중에 새벽마다 들려지는 마태복음은 신약의 가장 첫번째 부분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 까지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첫 부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와있는데,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태어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지만, 헤롯의 살해음모를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후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여러가지 시험에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열두제자와 함께 하며,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000 명을 먹이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열두제자중 한명인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게 되지만, 사흘후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과 함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가지 교훈 말씀들을 통해 나는 그 말씀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몇 번이나 놀랐는데 그 이유는 내가 실생활에서 많이 들어 왔었던 교훈 말씀들이나 구절들이 다시한번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때문입니다. `

이외에도 생활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옥같은 말씀들이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왜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인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라 김

목회자 후기

우리는 새벽기도회 성도가 몇분되지 않지만 새벽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번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4 복음서 중 하나인 '마태복음'을 듣고 읽게 되었다. 그 시작은 수동적이었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자세는 능동적으로 변해갔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셨다. 이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의 성취이다.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나의 작은 지식을 초월한다는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바이블 드라마는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운전 중이나 실생활 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서 나에게는 도전이 되었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 들은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다보면 나 자신의 신앙이 더욱 건강해지고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해 질 것으로 믿는다.

매일 성경을 들으면 그동안 성경을 다독하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성경을 5 번 이상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리더십에 감사를 드린다.

김선일목사